

## 기도할 수 있는데(요 15:1-10)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신자와 예수님과의 연합,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귀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7절).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귀를 갖는 기도,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기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제목이 적힌 청구서를 내밀고는 하나씩 둘씩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꼬박꼬박 해야 하는 재미없는 숙제요, 무거운 짐이며, 힘겨운 노동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또 왜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겐 도통 관심 없는 분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만 홀로 여기에 버려진 느낌에 흐느껴 울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마치 지금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뵈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뵈옵는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통도로를 내었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파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이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져요. 또한 내 속마음을 숨김없이 다 털어 놓고 싶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러잖아요? 좀 더 곁에 있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바쁜 시간도 쪼개어 내어주고, 없는 시간도 따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오붓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에게는 다 털어놓지 않는 얘기들을, 제자에게는 다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에게는, 아끼는 연인에게는 숨김없이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아가는 과정인 셈이지요.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그렇게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난 너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저 내 옆에 있어다오. 내 안에 머물러다오.”

그래서 기도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도요(me, too)”라고, 사랑한다고 말씀 드리는 거지요. 그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나 제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다면 마음을 푸시라고,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너를 용서하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뿌리 깊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니 마음이 놓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 받는다는 느낌에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다 아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방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사소한 얘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지켜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짧은 생각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런가하면 우리의 허황된 꿈조차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 슬픔, 고독, 우울, 좌절감, 낙심, 불안, 두려움, 환희, 연민, 이 모든 감정의 조각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째로 빠짐없이 다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사귄이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우리의 심장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내가 좋아져요. 별 볼일 없는 내가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쪼그라들었던 내가 다시 이만큼 커져요. 내 이미지가 좋아지고 내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져요.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시기심에서 풀려나요. 이타심이 늘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친밀감으로 충만해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뇌과학에서는 후두엽과 좌측 측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기능 자기공명영상(fmri)에서 그 부분이 붉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때 신경화학물질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수치가 점차 줄어들고,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서 도파민과 엔돌핀 수치가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능력이 증대되고, 긍정적인 감정, 기쁨과 감사, 평안, 희망이 더 증가하고, 자기수용 능력, 사람들로부터 응원 받고 있다는 느낌, 삶의 목표의식, 만족감이 늘어간다고 해요.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비심이 증가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귄 속에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친밀한 사랑의 사귄입니다.

둘째, 기도는 일이 아니라 쉽습니다. 노동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땀 흘려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성취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속페달을 밟고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깨 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듯이, 아빠의 무릎에 앉아 있듯이, 그렇게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기는 아빠와 눈을 맞추고,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소중한 너란다. 너 없이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온몸으로 말 걸어오시는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에, 온 세상이 숨죽이고 나는 쫓긋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온갖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젠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한없이 작아집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실마리가 풀립니다. 죄 짐도 내려놓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풀어놓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 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찬양)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보면, 때로 싸움을 하기도 하잖아요. 힘센 애들한테 몇 대 얻어맞고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엄마!” 부르면서, 와락 엄마 품으로 달려들지요. 기도는 거친 세상에서 이런저런 폭력을 당하고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피난처요, 쉼터입니다. 못된 짓 한 애들을 하나님께 막 이르기도 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못하도록 혼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숨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탄식 소리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도와달라는 말조차 내뱉을 수 없는 우리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때로 아무 말 없어도 이미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 침묵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목청 드높이지 않아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탄식이 되고, 탄식이 끝나는 곳에서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간구가 되고, 마침내 소망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절대로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내 손을 꼭 잡아.”

최근 뇌과학의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신경 회로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에서 벗어난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고 해요.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기도는 우리의 온갖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거쳐 건설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동안 두 손 가득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뭉뚱 묶여 있던 것들에서 풀려납니다. 끊임없이 노심초사했던 것들로부터 물러섭니다. 욕심으로 분주했던 마음이 비워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교만으로 높아졌던 내가 낮아집니다. 거짓으로 덧칠되었던 내가 정직해집니다. 질투로 거칠어졌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돼요. 형클어졌던 삶의 질서와 방식들이 다시 자리를 바로 잡습니다. 방자했던 나의 태도가 다듬어집니다. 빗나갔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됩니다. 진정한 쉼의 결과입니다. 기도를 통해 형클어졌던 시간들이 정돈되고 짜임새를 갖게 되고 집중력이 생기니까 하루 24시간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가장 경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는 파트너십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집을 하나님에게만 다 떠맡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짐을 던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맞잡고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파트너십, 피조물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함께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함께 만납니다. 때로 충돌하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밤을 지새우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낮추어, 철없는 우리 수준까지 다가오시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쉽게 풀어주시고, 차근차근 점잖게 타이르시면서 우리와 손을 맞잡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해 집니다.

제가 최근에 시를 한 편 썼는데요.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 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보채기 시작한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나는 부르짖는다.  
투사처럼.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이 먼저 나서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나는 고집을 부린다.  
노인처럼.  
내 삶의 경험이 전부라고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버거워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나는 명령을 밥 먹듯 한다.  
주인처럼.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거침없이 그분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듯  
그렇게 위세를 부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어제도 그분은 날 기다리셨지.  
오늘도 그분은 날 기다리신다.  
내일도 그분은 날 기다리실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를 활성화시킵니다. 물어보는 자유를 작동시킵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눈에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안 보입니다. 믿고 따를 분이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차라리 잘됐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를게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인 것이지요. 기쁘게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변화합니다. 순서가 바뀌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슬그머니 빠져 나갑니다.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다이내믹입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결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가장 합리적(legitimate prayer)이고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야망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투쟁해서 끝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대장인 것처럼 행세하려 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기도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야곱은 결국 환도뼈를 다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질 않았습니까? 다리를 절룩거리릴 때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맞서지 않겠노라고,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한들, 기도의 횟수와 분량을 늘려간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더라면, 그런 식으로 내리지 않았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의 잘못들이, 오류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그만 댕야지요. “기다려라” 그러시면 기다려야지요. “너는 손 떼라. 내 일이다” 그러시면 기꺼이 손을 떼야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요? 창의적일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세상에 기도만큼 창의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손을 맞잡고 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거나,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실은 더 찬란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되

는 것을 묵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또 언제 행복할까요? 자율적일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활성화시켜 주시므로 우리가 스스로 즐겁게 하나님을 뜻을 따를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행복이고, 기도를 통해 행복해지고,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해도, 나보다 더 먼저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와 손을 맞잡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날마다 행복한 기도의 생생한 체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